



비트코인의 진화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금융동향센터 (3705-6374)

다수의 비관론자들은 온라인거래소 해킹사건, 임원 돈세탁 혐의 기소, 가격 폭락 발생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시대가 종언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작동원리인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시스템 기술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인정되면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기술 진화가 진행되고 있음. 향후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의 분산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이나 데이터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 대 개인(P2P) 간에 이용될 목적으로 암호체계에 기초해 설계된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로,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가치와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 달러화 등 법정화폐(legal money)와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다수의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불과 6년 만에 온라인거래소 해킹사건, 임원 돈세탁 혐의 기소, 가격 폭락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 그러나 비트코인 자체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혁신적인 정보기술(IT) 개념은 새로운 형태로 복제되거나 계속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 비트코인은 결제수단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첫째, 비트코인은 사회의 가치교환 관리방식에 분산시스템(decentralized system) 개념을 새롭게 도입함.
 - * 기존의 은행과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수단은 모두 집중시스템 구조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해커 등 범죄 집단이 중앙서버에 대한 해킹을 감행할 경우 네트워크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음.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전 세계 수천 명에 달하는 채굴업자들이 보유한 컴퓨터망에 분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킹에 성공하려면 이들 모두를 동시에 공격해야 하므로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함.
 - * 분산시스템은 비트코인 주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잔액과 이체 현황을 기록·보관하는 블록체인(blockchain)으로 명명되는 공개회계장부(public ledger)에 의해 작동됨. 비트코인 사용과 잔액 현황은 전 세계 채굴업자들이 보유한 컴퓨터망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 둘째, 비트코인이 글로벌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도입된다면 분산시스템 기능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거래 수수료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셋째, 자금결제처리기관, 부동산관리증등재기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무들에 대한 전산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음.
 - 넷째,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세계 수십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금융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비트코인에 대해 몇 가지 결함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 첫째,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함.
 - 둘째,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마약상이나 무기거래상 등이 비트코인을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음.
 - 셋째, 전자지갑(digital wallet : 비트코인 보유상황을 관리하는 개인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도쿄의 마운트곡스(Mt. Gox)와 슬로베니아의 비트스탬프(Bitstamp) 사례에서와 같이 비트코인 온라인거래소 계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사이버공격이나 약탈활동에 취약할 수 있음.

- 비트코인은 해킹 취약성의 보강으로 보다 강력한 형태의 디지털화폐로 거듭나지 못하면서 대중적인 확산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감독당국 역시 강화된 규제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롭게 출현하는 여타 정보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역시 초창기 실험 단계에 있는 만큼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 비트코인은 정보기술의 개방형 소프트웨어(open-source)와 저작권 자유(copyright-free)를 지향하고 있어 누구든지 애플리케이션 접근과 복제가 가능하므로 개선된 버전이 제시되거나 한층 진화된 애플리케이션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창업가 인명사전(Who's Who of Internet pioneers)은 투자확대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트코인의 미래상을 여전히 밝게 내다보고 있음.
 - 세계 최초의 상용화 웹브라우저(Netscape)의 창업자인 Marc Andreessen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맥사이트(LinkedIn)의 창업자인 Reid Hoffman은 지난해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에 3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2013년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액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임.
 - 금년 1월 26일에는 디지털지갑 제공업체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부공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개설하였으며, 동 거래소에는 뉴욕증시와 스페인 은행금융그룹인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의 벤처사업 자회사가 7,5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함.
 - 이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디지털화폐 개발이나 각종 전산처리업무 대체서비스 발굴이 Facebook이나 Twitter 등 SNS 혁명이 보여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함.

- 향후 디지털화폐의 혁신이 촉진되면서 다국적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의 분산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이나 데이터시스템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에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월가 은행들과 미 연준은 비트코인의 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뉴욕 등 주 감독당국들은 비트코인의 금융 혁신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해당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착수한 상태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코리아(buybitcoin.co.kr)와 코빗(korbit.co.kr)이 비트코인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5만 명 정도가 거래계정인 전자지갑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핀테크(FinTech)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분산시스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KIF**